

# 한스 셔로운의 주택설계에 나타난 근대 기능주의

- 바이센호프 주택을 중심으로 -

Hans Scharoun's House Design and Modern Functionalism

- A House at Weissenhofsiedlung -

황보 봉\* / Hwangbo, A. B.

## Abstract

German architect Hans Scharoun (1893-1972) has long been known as an Expressionist Architect, but recent scholarships reveal that his architectural pieces represent a profound idea of modern functional building. In this context, his architectural tendency can be constructed as an advanced functionalis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Germany, many young architects were not given chances to build due to economic hardship after World War I, and they were naturally led to imagery sketch designs for future architecture. Scharoun began with utopian fantasies as one might easily notice through his watercolor paintings in the Glass Chain period, but further developed his vision into a more concrete idea on organic building which he believed to be a modern functionalism. This paper intends to exemplify Scharoun's modern functionalism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his design of Weissenhofhaus presented at Stuttgart Deutscher Werkbund Exhibition in 1927. Weissenhofhaus is often rebuked for its expressionist qualities by famous critics such as Sigfried Giedion and Nikolaus Pevsner, but the house also suggests other possibilities within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In particular, Weissenhofhaus is chosen for its historical importance linking two world war eras in German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한스 셔로운, 근대 기능주의, 표현주의, 바이센호프 주택

Keyword : Hans Scharoun, Modern Functionalism, Expressionism, Weissenhofhau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독일 건축가 한스 셔로운 (Hans Scharoun, 1893-1972)은 최근 수년간 유럽과 미국의 건축학계에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태껏 셔로운은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1956-63)의 설계자였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 근대건축 형성기의 활동과 의미에 대해서는 비주류 표현주의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최근 표현주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잇따라 발표되는 데에 기인한다. 셔로운의 작품은 기능에 근거한 유기적 설계방법을 표방하면서 신기술과 재료의 사용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근대건축이 모토로 한 기능주의를 좁은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셔로운의 대표작으로 그의 건축적 역량이 처음 대내외에 알려지는 바이센호프 주택(Weissenhofhaus)의 건축설계과정을 통해 그가 의도하던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개념은 1925년 발터 그로피우스가 독일에서 출간한 저서 「국제건축」<sup>1)</sup>과 1932년 뉴욕의 「국제주의 양식」<sup>2)</sup> 전시회의 간행물인 동명의 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두 출판물은 근대건축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장식의 배제된 기능 위주의 건축설계방법을 들고 있다. 1943년 지그프리트 기데온이 하버드 대학에서의 강의록을 출판한 「시간, 공간 그리고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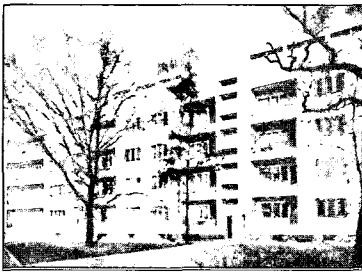
1)W. Gropius, *Internationale Architektur*, Albert Langen Verlag, München, 1925

2)H. R. Hitchcock & P. Johnson, *International Styl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32

\* 정희원, 국립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건축학박사

축」 역시 근대건축과 전근대건축을 구분하는 잣대로 기능주의를 역설한다.<sup>3)</sup> 기테온은 특히 기능주의에 대비되는 건축으로 과거의 장식적인 절충주의 건축과 건축가 개인의 감성이 드러나는 표현주의 건축을 들고 있다.

본 논문은 서로운의 작품이 기테온의 책에서는 표현주의 건축으로 지목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주의양식」 전시회에 서로운이 등장인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서로운의 건축이 진보적인 근대 기능주의 건축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했다. <그림 1> 그러한 관점의 실증적인 연구로 본 논문은 서로운의 초기 대표작인 바이센호프 주택에 나타난 ① 디자인 프로세스 ② 구조적 합리성 그리고 ③ 신재료의 사용의 세 가지 측면을 주된 잣대로 서로운의 건축을 근대 기능주의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  
「국제주의양식」 책자에 실린 서로운의 작품  
지멘스 집합주택, 1930년,  
Source: H. R. Hitchcock & P. Johnson, op. cit., p.211

서로운의 바이센호프 주택을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 주택이 서로운이 설계하고 완공시킨 초기의 여러 작품 중 하나로 그치지 않고 그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한 “유기적 이론”(organisches Bauen)의 최초의 물리적·공간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이라는 특성이 서로운의 유기적인 의도를 더욱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건축유형이라고 판단했다. 이 주택이 건축된 1927년은 시기적으로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서로운 건축이 표현주의적 성향에서 기능적인 성향으로 전이하는 시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 2.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개념과 한계

### 2.1. 국제주의양식에 나타난 기능주의

근대건축에 있어 기능주의에 대한 개념은 「국제주의양식」(International Style) 전시회에서 가장 확실히 드러난다. H. R. 히치코크와 P. 존슨이 전시회를 통해 공동 출간한 동명의 책 제3장에는 기능주의의 개념이 전통적으로 윤리적이고 고고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점차 반미학적(anti-aesthetic)이고 경제적인(economic) 것으로 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sup> 「국제주의양

식」의 책 내용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럽과 미국의 건축가들의 차이점에 대한 것이다. 히치코크와 존슨은 유럽의 기능주의자들은 본래 장인(匠人, builder)이었으며 의식적으로 건축가라는 인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식(knowledge)이 아닌 기술(technique)로써 건축을 훈련받은 이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작품의 미학적 측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기능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장인으로 주장할뿐더러 애초에 건축가라고 이해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유럽의 기능주의자들과는 달리 만일 건축주가 건물의 디자인을 문제삼으며 표피를 걷어내라고 요구하면 그에 따를 수 있는 이들로 디자인은 이들에게 있어 하나의 장식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술적 진보에 기인한 국제주의 양식의 건물은 기술자보다 더 많은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건축가들의 (예술적) 작품보다 더 우수하거나 적어도 더 순수한 것으로 비춰졌다. 히치코크와 존슨은 더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특정한 개인의 작업방식을 넘어 그 자체로 일련의 미학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 원칙에 의해 더 많은 건물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sup>5)</sup> 이러한 시각은 고전 혹은 고딕절충식 건물과 장식이 포함된 일체의 건물을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리시키며, 공장생산에 의한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거나 (전통적인) 미학원리에 의존하는 건축적 접근방식 모두를 기능주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기능주의의 개념을 좁게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미국에서 기술자들의 작업이 건축가들의 그것보다 더욱 성공적이라는 기술우위의 시각은 근대 기능주의가 미국에서 어떻게 기계미학으로 축소되어 정의되어 갔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sup>6)</sup> 국제주의양식 전시회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미국의 위상을 배경으로 미국식으로 축소된 근대건축을 전세계적으로 유통·소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2.2. 기계미학의 딜레마

「국제주의양식」은 유럽의 근대건축과 기능주의 건축 그리고 국제주의 양식을 모두 동일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기테온의 「시간, 공간 그리고 건축」은 이러한 시각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테온은 기계미학에 근거한 시각을 골자로 장식이 배제된 규격화된 부재의 사용을 통한 건축 이외에 섬세한 디자인의 채용이나 비규격품의 사용 혹은 장식의 적용은 건축비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제주의 양식의 기능주의(기계미학)는 기술(techne)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즉, 절충식 건축을 피하기 위해 고전적 미학에서 벗어나려는 논리는 오히려 ‘반미학’이라는 기계미학과 ‘기술’이라는 비고전적 장식 두 가지에서 모두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는 대

3)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67

4)H. R. Hitchcock & P. Johnson, op. cit., p.51

5)Ibid, pp.52-54

6)Ibid, p.52

조적으로 기능의 개념을 반미학적인 태도와 결부시키지 않고 순수한 기능 그 자체로써 파악한다면 건물의 형태는 지극히 자유롭게 될 수도 있다. 서로운을 비롯한 여러 건축가들은 기술의 발전이 고전적인 디자인의 원리들로부터 건축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기능은 근대건축의 새로운 디자인 원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히치코크와 존슨이 의도했던 좁은 의미의 기능주의와는 달리 「국제주의양식」 전시회에 포함된 작품 중에는 절충주의 혹은 표현주의 건축가라고 불리우는 알바 알토, 에리히 멘델존, 구나 아스플룬드 그리고 한스 서로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은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또 다른 측면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서로운이 설계한 베를린의 지멘스집합주택(Siedlung Siemensstadt)의 경우에는 기성재 자재의 사용으로 효율적 시공을 기대할 수 있어 국제주의양식에 걸맞는 사례이긴 하지만 개구부가 불규칙하다거나 건물 가장자리가 유선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7)</sup> <그림 1> 서로운에게 있어 기능주의는 재료와 공법에 의해 한정되기보다는 신기술과 신재료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파악되었다. 서로운의 이러한 창의적인 의도가 본래 의도와는 달리 표현주의로 축소되게 된 것은 그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당시에는 견고하게 형성되지 못한 반면 그의 건축이 보여주는 표현적인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운의 건축이 초기의 표현주의적인 경향에서 점차로 기능적인 건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건축사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표1 참조>

### 2.3. 서로운의 유기적 기능주의

서로운의 건축은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건축역사책에 감성에 치우친 표현주의 작품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기데온은 서로운의 건축이 근대건축의 형성과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아예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페브스너 역시 표현주의 건축을 두고 개인의 표현에 만족하고 현실을 벗어나 환상에 머무르는 것으로 기술했다.<sup>8)</sup> 서로운의 건축을 이성을 벗어난 표현주의 건축으로 일방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범주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십 여년간 발간된 저서들에 의하면 서로운의 건축은 알토와 아스플룬드, 헤링 그리고 멘델존 등과 함께 유기적 기능주의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로피우스와 미스 그리고, 코르뷔지에로 대표되는 기능적 합리주의와 함께 근대건축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9)</sup> 이러한 전향적인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진 데에는 서로운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미처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근대건축사의 편찬이 과도하게 국제주의양식을 기준으로 한 기능주의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1920년대에 출판된 독일의 건축역사책에는 히치코크와 존슨 그리고 기데온과는 반대되는 시각의 건축관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돌프 베스가 집필한 「근대 기능주의 건축」으로, 베스는 이 책에서 미스의 건축을 이성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한편 서로운의 작품은 기능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0)</sup> 베스는 서로운이 표현주의적인 수채화를 그렸을 때 유기적인(organic) 건축을 하되 결코 살아있는 생물체의 기관(organicism)과 혼동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한 인물이다.<sup>11)</sup>

<표 1> 건축역사책에 나타난 서로운 건축의 정의

건축역사가	저서명	서로운 건축의 정의	서지사항
A. Behne	근대기능주의건축 Der Moderne Zweckbau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Drei Masken-Verlag Berlin, 1926, pp.43-47, 66
W. C. Behrendt	신건축의 승리 Der Sieg Des Neuen Baustil	건물의 기능적 가치에 따라 설계함.	Fritz Wedekind Stuttgart, 1927
N.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표현주의 건축)은 비현실적 개인적 표현과 만족에 그침	Penguin, London, 1960, p.217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형성과 발전에 별로 도움 안 됨.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686(5th ed.)
W. Pehnt	Expressionist Architecture	비이성적인 (irrational) 건축	Thames & Hudson London, 1973, p.102
V. Lampugnani	The Thames and Hudson Encyclopaedia of 20th c. Architecture	표현적 expressive 기능적 functional	Thames & Hudson London, 1986, pp.299-302
C.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직관적이고 표현적인 건축 intuitive and expressive	Penguin, London, 1987, p.59, 63
J. Fleming, et al.	Penguin Dictionary of Architecture	특이한 (curious) 건축가 표현주의 건축가	Penguin, London, 1991, p.391 (4th edition)
J. C. Bürkle	Hans Scharoun	전위예술가 (avant-gardist) 개방적/유기적 건축가	Artemis Verlags Zürich, 1993 p.13
P. Blundell-Jones	Hans Scharoun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진보적인 기능주의 건축	Phaidon, London, 1995
B. Fletcher	Sir Banister Fletcher's History of Architecture	천재적 (genius) 작가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96 p.1378
W.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근대건축운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 (reminder)	Phaidon, London 1996, p.198 (3rd edition)
J. S. Curt	Oxford Dictionary of Architecture	때로 표현주의자 절충주의자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589
A. Colquhoun	Modern Architecture	기능적으로 '표현적'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170
J. C. Kirschenmann	Hans Scharoun	고집불통 (Wilful) 건축가 철학적으로 심오한 건축	A de S Publishing Tokyo, 2004, p.42
E. Syring & J. Kirschenmann	Scharoun	기능주의자로 되지만 감성적이고 표현적	Taschen, 2004 p.19

10)A. Behne, *Der Moderne Zweckbau*, Drei Masken-Verlag, Berlin, 1926, pp.43-47, 66

11)1923년 6월 18일 베스가 서로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P. Pfankuch, *Hans Scharoun: Bauten, Entwürfe, Text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1974, p.38

7)Ibid, p.211

8)S. Giedion, op. cit., p.618; N.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London, 1960, p.217

9)P. Blundell-Jones, *Hans Scharoun*, Phaidon, 1995 및 <표1> 참조

또 다른 건축역사가 발터 C. 베어런트 또한 서로운의 건축을 미스의 이성적 건축과 대비되는 기능적 건축으로 파악했다. 서로운의 건축은 이처럼 처음부터 상이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최근까지 서로운에 관해 내려진 다양한 평가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는데, 시간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의 건축이 기능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로운의 건축을 유기적 기능주의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서로운이 의도했던 건축의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도면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납된다는 데에 근거한다. 서로운의 디자인을 통해 유기적 건축(*organisches Bauen*)을 정의하면 건축물의 형태는 거주자의 생활방식과 공간의 이용패턴 그리고 대지가 위치한 방향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의 공간형태가 결정되며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모이면 총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공간과 형태가 도출되는 것이다. 즉, 건물의 프로그램과 기능에 의해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스와 그로피우스의 경우처럼 제도판에서 그리드에 맞추어 크기와 형태가 정해진 뒤 기능이 부여되는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경우인 것이다. 서로운의 유기적 건축은 선배이자 동료건축가인 휴고 헤링(Hugo Häring, 1885-1953)에게서 크게 영향 받게 되는데, 헤링의 이론은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헤링에 의하면 건물의 기능과 표현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반응하며, 건물의 형태는 내부로부터 스스로 발견된다. 즉, 형태는 외부에서부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성장하며 발전해 나간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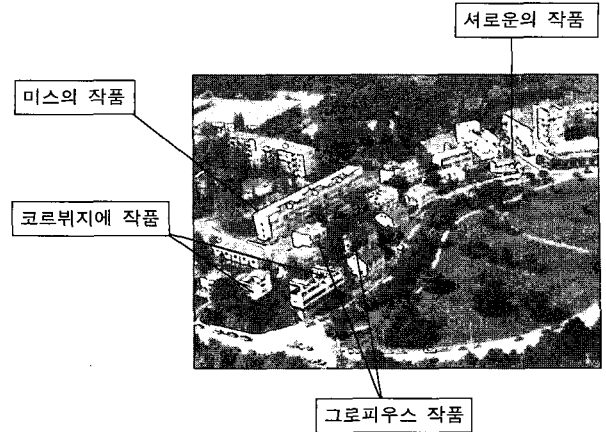
### 3. 바이센호프 주택의 건축적 특성

서로운의 바이센호프 주택에서 처음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다른 주택들과 비교해서 규모도 작거니와 현관에서 보이는 탑 모양의 계단실 때문에 무언가 주변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 드러내기의 방법이다. <그림 2, 3, 4>

회색의 박스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 미스와 그로피우스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의 형식미와는 달리 서로운의 주택은 사각형의 박스와는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곡선미를 느낄 수 있고, 출입구 쪽으로 보이는 창 형태와 배치도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W. C. Behrendt, *Der Sieg Des Neuen Baustil*, Fritz Wedekind, Stuttgart, 1927

13) H. Haring, *Wege zur Form*. In *Die Form*. 1925, Vol. 1, pp.3-5. 헤링은 서로운의 건축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헤링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P. Blundell-Jones, Hugo Häring, Axel Menges, Stuttgart, 1999; 황보 봉, 휴고 헤링의 유기적 건축과 이론창조의 문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02, 제18권 10호, pp.107-114 참조



<그림 2> 바이센호프 주택단지 전경(1927)

서로운의 주택은 분명 무언가 다른 느낌이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운의 건축형태는 완성된 최종작품으로서가 아니라 건축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본연의 건축의도와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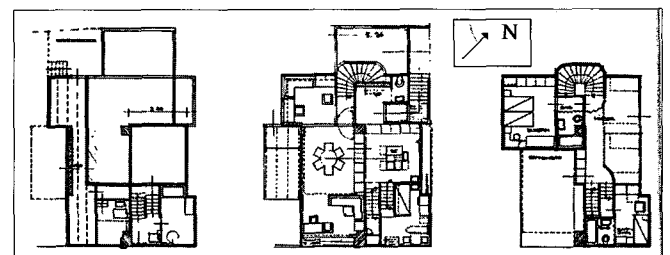
<그림 3> 바이센호프 주택 (전경)



<그림 4> 현관상세

#### 3.1. 설계 프로세스: 유기적 기능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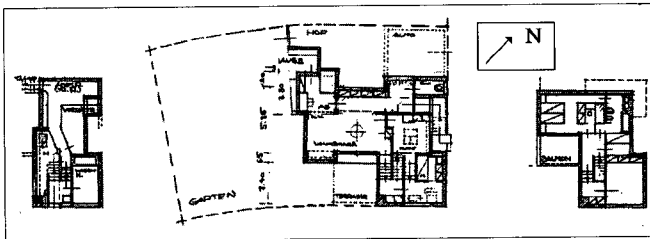
서로운의 바이센호프 주택은 그가 처음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한 것이었던 만큼 미숙한 경험 탓에 많은 고민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다. 건축물의 기능과 인간활동의 효과적인 반영을 위해 서로운은 규칙적이고 획일적인 크기와 형태의 부여보다는 기능적 요구에 의해 평면과 입면이 완성되어 가는 방법을 취했다. 바이센호프 주택의 평면이 완성되어 가는 다음의 4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경직된 배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유연한 적응력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바이센호프 주택 평면도 (4단계 중 1단계) 지하층, 1층,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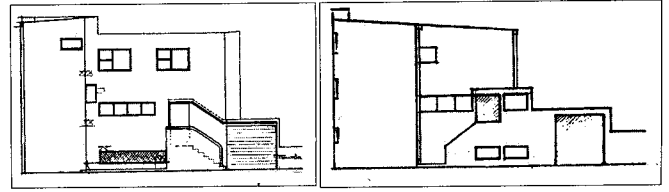
처음 서로운이 대지를 파악했을 때에는 꽤 큰 주택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거의 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주택을 생각했던 서로운은, 두 번째 안에서 소규모 가족을 기준으로 전체의 크기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서로운이 처음 디자인한 평면도를 보면 두 개의 큰 테라스와 잔디밭을 가진 저택으로 정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수영 풀과 파고라 그리고 계단 뒤 북측에는 차고까지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내·외부 공간이 유리벽과 단차로 분리되어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며, 내부의 식당과 거실도 공간적으로 쉽게 하나가 된다. 즉, 분리보다는 연속성을 더욱 염두에 둔 설계방법을 엿볼 수 있다.

실내의 공간배분은 기능에 따라 거실과 침실 그리고 서비스의 세 가지로 분리했다. 생활공간인 거실은 1층에 두고 침실은 2층에 배치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활동성 모두를 확보했다. 1층의 거실과 서비스 공간은 항상 분리될 필요는 없기에 하나의 트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집안일을 돌보는 파출부와 가족사이의 구분도 엄연히 존재한다. 계단을 두 개나 두어 각기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렇고, (나선계단이 가족용) 부엌에서 식당과 세탁실로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배려한 것도 기능적인 배려인 동시에 또한 당대의 사회조적을 반영하고 지속시키는 물리적 장치이기도 하다. 2층의 게스트룸이 욕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이나 실내의 가구들이 모두 미리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운이 상당히 섬세하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면의 구성에 따라 입면 또한 유기적으로 창문의 위치까지 실내의 공간에 맞게 비정형으로 배치시켰다.



<그림 6> 바이센호프 주택 평면도 (4단계 중 2단계) 지하층, 1층,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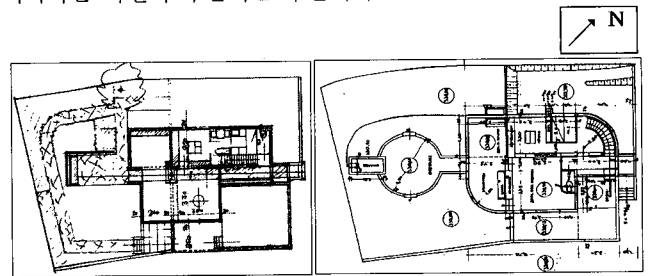
두 번째 평면 안에는 처음 계획안의 많은 공간을 삭제하고 실(室)도 새로이 배치하는 등 몸집을 줄이는데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6> 두 개의 큰 계단은 필요이상으로 부담스러웠는지 큰 나선계단은 제거되고 3단으로 된 계단을 설치해 가족과 파출부 모두가 사용하게 했다. 파출부는 세탁실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침실이 있는 2층으로도 접근하기 쉽게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청소·세탁과 같은 주택의 성능관리에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평면은 처음 것에 비해 1층은 10% 그리고 2층은 30% 정도 면적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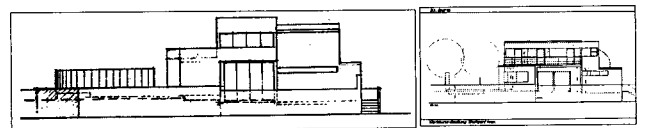
<그림 7, 8> 바이센호프 주택의 동쪽 입면도 (4단계 중 1, 2단계)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의 동쪽 입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디자인 모두 지붕선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7, 8> 일반적으로 근대건축의 특징으로 드는 평지붕이 서로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미학적인 관점을 이유로 들지 않는다면 시공 상의 문제나 실제 건물성능에 있어 지붕선의 구배는 문제되지 않는다. 처음 계획안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창문배열이 두 번째 안에서 다시 정렬되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즉, 건물전체에 대해 다시 계획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에 기본적인 배열을 한 다음에 평면의 전개에 따라 창의 배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측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최종안에서는 창의 배치가 평면의 변화와 함께 다시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운의 건축은 언제나 이렇게 구조적인 혹은 기능적인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다음 자연스럽게 형태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근대 기능주의를 공통적으로 추구했지만, 미스와 코르뷔지에가 추구한 형식 미학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그림 9, 10> 바이센호프 주택의 1층 평면도 (4단계 중 3, 4단계)



<그림 11, 12> 바이센호프 주택의 남쪽 입면도 (4단계 중 3, 4단계)

세 번째 평면은 처음 두 번의 디자인과는 평면의 형태가 달라 보인다. 거실과 침실 그리고 서비스 공간이 분리된 것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거실과 식당사이 단차가 새로이 생겨나서 처음 디자인에서 보여줬던 개방된 분위기는 시각적으로는 유지되지만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림 9>

이 변화는 거실과 정원과 관계가 보다 밀접해지는 효과를 낳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축소되기는 하지만 마지막 평면도

까지 유지된다. 서비스 공간이 타워형태로 보이던 남동쪽 입면이 삭제된 것도 큰 변화이다. 서비스 공간이 북서쪽에 재배치되면서 현관과 거실 그리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축이 강조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남측의 입면은 2층에 위치한 테라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안에서부터 고려했던 테라스는 창의 단조로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림 11 및 13 참조>

네 번째 안은 계단실이 사람의 움직임과 함께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나선형으로 바뀌면서 타워 형태를 다시 도입했다. <그림 10, 12> 1층과 2층에 위치한 주요한 방들을 모두 남향으로 배치시키고, 대지가 전체 주택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점을 십분 활용해서 코너의 계단을 타워로 강조한 것은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붕의 경사 물매도 다른 주택들과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창의 배치는 세 번째 안과 비교해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테라스가 강조되고 있고 2층의 베란다와 창은 집합주택의 그것 만큼이나 기계적인 느낌이다. 주택 내·외부의 높이의 차를 이용해서 1층 거실에서는 고정된 소파에서 스투트가르트 시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반면 가로에서는 주택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도 큰 특징이다. <그림 13, 14> 언덕위에 위치한 바이센호프 주택단지는 남쪽으로 스투트가르트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13> 바이센호프 주택  
(정원에서 본 전경)



<그림 14> 바이센호프 주택  
(실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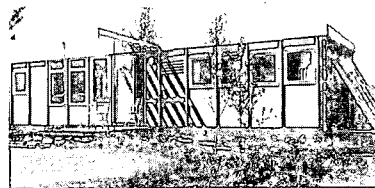
### 3.2. 건축재료와 구조

셔로운(b.1893)은 바이센호프 전시회를 기획한 미스 반 데르 로에(b.1886)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축가들보다 10여년 이상 나이가 적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근대건축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었다. 흔히 알려져 있듯 셔로운이 건축설계에 있어 표현적인 성향에 치우쳐 근대건축의 정수인 구조적 합리성과 신재료의 사용을 망각했다는 시각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셔로운의 기능주의는 특정한 대지가 가진 역사적·물리적 특성과 건축물이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즉, 건축설계의 최종 결과물은 각각의 건축가마다 달리 표현될 수 있지만, 개별 형태와 이미지의 구축과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미학의 적용은 별개의 방법론으로써 뚜렷이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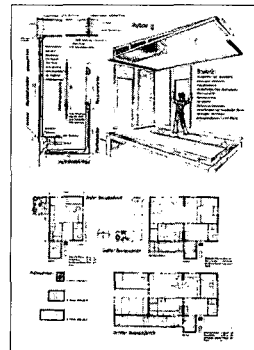
새로운 건축재료로서 철과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의 사용은 바이센호프 주택 뿐 만 아니라 셔로운의 많은 작품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현적인 성향으로 문제가 된 셔로운 작품의 건축적 특징은 거의가 외관 가장자리의 마감을 유선으로 처리하거나 개구부 배치를 불규칙하게 처리한 것 등인데; 이것들은 재료의 사용이나 구조의 합리성 그리고 효과적인 시공 모두를 만족시키는 범위내의 작업이다. 에리히 멘델존이 설계한 아인쉬타운 타워(1919)에 나타난 콘크리트의 난해한 시공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셔로운의 바이센호프 주택 역시 타워의 곡선부를 콘크리트로 마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은 셔로운이 콘크리트의 물성을 최대한 표현해 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멘스 집합주택에서 보았듯이 셔로운은 기계미학과 대량생산의 가치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이 없다. 셔로운이 근대건축의 기술적·미적 감성을 바이센호프 주택에 상당히 품격 있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점은 이후 그가 1932년에 설계한 「성장하는 주택」(wachsende Haus)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림 15, 16>

“빛, 공기 그리고 모두를 위한 주택”을 주제로 한 베를린 무역전시회에 제한경쟁공모작으로 출품된 이 계획안에서 셔로운은 표준디자인과 확장할 수 있는 시공법을 채용함으로써 1세대 가족을 위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구조로 된 이 주택은 가구의 크기에서 추출된 모듈을 사용했으며, 각 생산 유닛별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했다.<sup>14)</sup> 철저하게 기계에 의한 생산방식과 건식시공 그리고 경제성을 우선으로 한 보급형 저가주택의 양산을 위한 표본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 위: 성장하는 주택  
전경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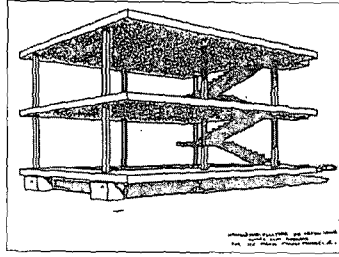


<그림 16> 오른쪽: 성장하는 주택 개념도  
Das wachsende Haus auf der Ausstellung  
"Sonne, Luft und Haus für alle"/Messengelände  
Berlin-Charlottenburg, 1932  
“빛, 공기 그리고 모두를 위한 주택” 전시  
회에 출품된 성장하는 주택, 1932

그로피우스가 생산과정의 합리성과 건식시공방법에 주목한 것처럼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가 도미노 구조를 제안했던 것처럼 셔로운 역시 구조적 합리성과 시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한 것이다. <그림 17> 바이센호프 주택에 나타난 기능주의는 후일 「국제주의양식」을 통해 재현되는 좁은 의미의 그것과는 다른 폭넓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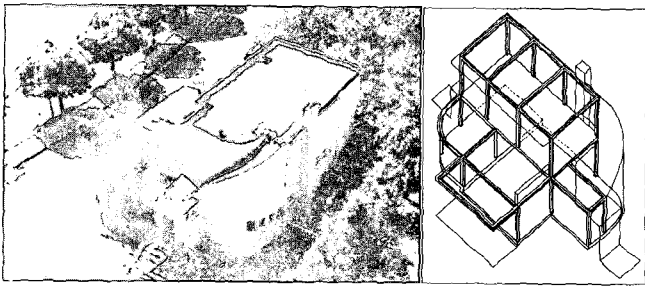
14) J. C. Bürkle, Hans Scharoun, Artemis Verlags, Zürich, 1993, pp.82-83

르 코르뷔지에의 도미노 시스템은 집을 의미하는 라틴어 '도무스' (domus)에서 비롯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파괴된 벨기에의 주택을 빨리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그림 17> 르 코르뷔지에 (1914-5) / 도미노 시스템 (Dom-ino skeleton)

서로운의 많은 건축디자인에는 대량생산된 기성품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바이센호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정한 모듈로 설계된 벽체와 철골프레임이 그런 사례이다. 외관상에 나타나는 표현적인 요소에 불구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센호프 주택의 구조는 정원으로 향하는 창문부분과 타워로 된 계단실을 제외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재 철골생산품을 그대로 조립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18, 19>



<그림 18> 바이센호프 주택 전경 (Airview) <그림 19> 철골구조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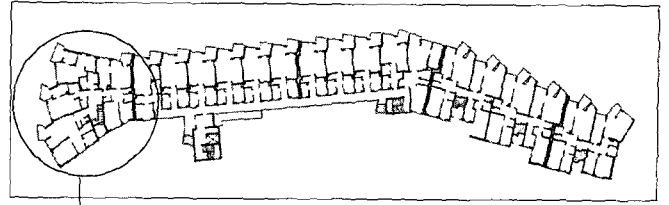
타워부분의 유연한 마감은 고정적이고 딱딱한 철골구조에 불구하고 주택전체의 느낌을 부드럽고 풍부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서로운은 바이센호프 주택 이후에 설계하는 여러 채의 집합주택들에 이러한 건식구조를 채용함과 더불어 개별주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적 장치를 만들어 낸다.

서로운이 이후에 설계하게 되는 카이저담 집합주택 (Kaiserdamm APT, 1928-29)과 브레스라우 집합주택 (Breslau Wohnheim, 1929) 그리고 지멘스 집합주택 (Siedlung Siemensstadt, 1930)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서로운은 기본적인 모듈을 채용해서 설계하되 각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에 맞춰 건물과 대지가 유기적으로 상호반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서로운의 건축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에 흔히 알려져 있듯 별난 개성으로 치부되던 표현주의와는 달리 기제미와 공장생산이라는 대전제위에 개별 건축물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보다 진보된 기능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림 20> 지멘스 집합주택 평면도  
Siedlung Siemensstadt, Berlin, 1932

지멘스주택의 기본유닛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만, 가장자리 디자인은 주변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성격이 부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림 1에 비춰진 자멘스 집합주택의 기계적인 이미지는 평면도에 나타나는 독특함에 의해 주변의 다른 집합주택 아파트들과는 구별되는 지멘스 집합주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0> 공장생산이 가능한 기성자재를 고려한 모듈이 사용된 개별유닛의 반복되는 패턴에 비해 가장자리의 변화는 집합주택설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보다 경쾌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 4. 결론

본 논문은 독일 건축가 한스 서로운이 1927년 독일공작연맹 전시회에 출품했던 바이센호프 주택의 설계과정에 나타난 건축디자인의 특성과 구조적인 합리성 그리고 신재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그가 의도했던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개념을 파악했다.

바이센호프 주택의 설계과정을 4단계에 걸쳐 파악한 결과 서로운의 디자인은 건물의 기능적 요구가 대지의 특성과 맞물려 최대한 수용된 작품으로, 기성재 철골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구조의 채용과 철, 유리 및 콘크리트와 같은 신재료의 물질성 시공기술이 적극적으로 응용된 진보적 근대건축임을 알 수 있다. 바이센호프 주택에 드러난 기능주의를 미스 반 데르 로에와 그로피우스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로 대표되는 「국제주의양식」의 기능주의와 비교해본다면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미학의 채용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개념의 폭을 더욱 넓게 설정하고 있음도 찾아볼 수 있다.

기테온(1967)과 페브스너(1960)에 의한 초기의 근대건축역사 책은 기능주의의 개념을 국제주의 양식에 제시된 것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서로운의 건축은 표면상 드러나는 두드러진 디자인 덕분에 표현주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으며,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산물로써 많은 이들에게 받

아들여진다. 초기의 비평가들이 표현적인 양상에서 진보적 기능주의로 서로운의 건축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간과하고 있었다면, 최근의 여러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서로운을 기능주의자로 수정해 놓고 있다. <표 1 참조>

서로운이 지니고 있던 표현적인 성향은 근대 기능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될 수도 있다. 즉, 서로운의 작가적 의지는 기계적이고 한정된 기능주의가 아닌 진보적이고 발전해가는 기능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20세기 초반의 근대 기능주의는 문화적 단절과 비인간적 건조환경에서 탈피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을 통해 그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sup>15)</sup> 하지만, 윌슨(1995)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이론적 원리가 국제주의 양식의 좁은 기능주의와 역사적 연속성의 부재를 인식하고 국제주의 양식이 추구했던 원리를 다시 근대건축 이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운의 건축을 근거로 근대 기능주의의 개념을 다시 고려해 본다면 근대건축의 모토인 기능주의는 그 이론적 범위와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sup>16)</sup> 이런 측면에서 서로운의 건축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기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은 것이다. 서로운의 건축이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의 건축이 넓은 의미의 근대기능주의 건축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반증한다.<sup>17)</sup>

서로운의 건축은 건물의 기능적 요구를 자유로이 수용해 공간구조와 건축형태를 도출해내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출발하지만, 신재료와 신공법을 응용하면서도 특정한 건축형태와 방식에 구애받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대기능주의의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의미 있는 접근방법이다. 오늘날 현대건축가들이 디지털 기법을 응용하여 보여주고 있는 첨단 건축디자인은 서로운이 추구하던 기능적 요구조건의 반영과 환상적인 외형, 그리고 건축공법의 측면에서 큰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운 건축의 재발견을 통한 근대 기능주의의 확장된 개념은 근대건축형성기 그의 존재감에 더욱 무게를 실어줄 뿐 아니라, 그의 역할을 통해 근대건축 전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가져다준다.

## 그림 출처

그림 1. H. R. Hitchcock & P. Johnson, op. cit., 1932, p.211

15) C.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London, 1991(6th edition)

16) C. Wilson, *The Other Tradition i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London, 1995, p.30

17) 한편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건축은 지나친 몸짓과 과도한 장식의 채용으로 인해 표현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운의 건축을 표현주의 건축으로 더욱 오해되도록 한 측면도 있다.

그림 2. J. Joedicke, op. cit., 1989, p.16

그림 3-4. Taken by Author, 1999

그림 5-14. P. Blundell-Jones, op. cit., 1995, chapter 3

그림 15-16. J. C. Bürkle, op. cit., pp.82-83

그림 17. S. Kostof, *A History of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85, p.706

그림 18. Anonymous

그림 19. M. Wells (1994) In the Exhibition Catalogue 「Hans Scharoun Ten Projects」 A3 Times, London, p.40 (figure 1c)

그림 20. P. Blundell-Jones, op. cit., 1995, p.120

## 참고문헌

- Behne, A., *Der moderne Zweckbau*, Drei Masken-Verlag, Berlin, 1926
- Blundell-Jones, P., *Hans Scharoun*, Phaidon, London, 1995
- Bürkle, J. C. *Hans Scharoun*, Artemis Verlags, Zürich, 1993
- 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ition) Thames & Hudson, London, 1992
- Giedion, S., *Space, Time and Architecture*, (5th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67
- Hitchcock, H. R. & Johnson, P., *International Styl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32
- Jencks, C.,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Penguin, London, 1987
- Joedicke, J., *Weissenhofsiedlung Stuttgart*, Karl Krämer Verlag, Stuttgart, 1989
- Kirsch, K., *Weissenhofsiedlung*, Rizzoli, New York, 1991
- Pehnt, W., *Expressionist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London, 1973
- Pevsner, N.,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London, 1960
- Pfankuch, P., *Hans Scharoun: Bauten, Entwürfe, Text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1974
- Pommer, R. & Otto C. F., *Weissenhof 1927 and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Zevi, B., *Towards an Organic Architecture*, Faber & Faber, London, 1950

<접수 : 2005. 6. 24>